

고려인 무료 법률 지원...김정은 변호사, 우수 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호남권 유일 꾸준한 기부 등 선한 영향력 높게 평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고려인들을 직접 찾아 나서고 이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친 광주의 한 변호사가 있다. 법률사무소 인의 대표변호사 김정은(42·변시 4회·사진) 변호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는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최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에서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전국 변호사 중 5명이 선정되는 우수 변호사 중 유일한 호남권변호사다.

특히 김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과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사)아시아여성네트워크와 함께 미안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500만원의 후원금 기부, 고려인마을을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에 1000만원의 후



원금 기부,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구호를 위한 성금 모금운동을 꾸준히 전개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의 고려인 마을에 대한 애정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대학시절 은사의 권유로 초창기 고려인마을의 고려인에 대한 한글수업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고려인들에 대한 한국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채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점에서다.

이후 김 변호사는 군대를 다녀오고 공부를 하면서도 고려인에 대한 부채감을 잊혀지지 않아 변호사가 된 이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고려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 안되는 변호사가 매주 진행하다 보니 벅차기도 했지만, 김 변호사와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이제는 15명의 변호사가 매주 돌아가며 무료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고려인들이 많은 탓에 이들의 고충을 해결 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김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각종 법률구조기관이 있음에도 고려인뿐 아니라 지역에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들이 많다"면서 "지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문예위,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예술치유키트' 전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는 기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열)와 함께 학대피해아동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예술치유키트' 사업을 진행했다. <사진>

예술치유키트는 학대피해아동이 가정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예술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미술활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 도모와 함께 가족 간 이해도를 증진하고 가족 기능 강화 도모를 위해 제작됐다. 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한 '예술치유키트'는 전남서·중·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61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부모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상황에서 예술치유키트를 통해 가족기능이 강화되어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장은 "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을 비롯한 문화소외계층이 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수 박진영,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10억원 기부

가수 박진영이 국내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 10억 원을 기부했다. <사진>

28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진영은 이달 9일 삼성서울병원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 등 단체에 각각 5억 원씩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향후 국내 만 24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수술과 재활 등 치료비, 희귀 난치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해외 아동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진영은 "저의 기부가 작은 보탬이 되고 더욱 많은 사람이 기부에 동참해 미래를 이룰 아이들을 돕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회사 차원에서 소아 환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DM'(Every Dream Matters!·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외 아동 698명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누적된 치료비 지원 기금은 JYP 본사 13억5000만



원, 일본지사 2천400만 엔(약 2억3200만 원)이다.

또한 JYP는 난치병 투병 중인 아이들의 소중한 소원을 이뤄주는 'EDM 소원 성취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230명의 소원을 이뤄냈다.

/연합뉴스

인사

◆한진KDN

- ▲기획관리본부장 정수옥 ▲커뮤니케이션실장 장항 ▲기획처장 백성필 ▲ESG경영처장 신수형 ▲중남발전사업처장 권기열 ▲원전사업처장 김우우 ▲클라우드사업처장 조영호 ▲인사노무처장 김경식 ▲IT운영사업처장 조대현 ▲서남발전사업처장 강용수 ▲미래디지털사업처장 임진아 ▲보안사업처장 구은영 ▲서울인천지역본부장 최영환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봉균 ▲경기강원지역본부장 김미경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박병기 ▲인천사업처장 이재정 ▲경남사업처장 김인명 ▲강원사업처장 김장수 ▲전북사업처장 장호성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고려인마을 책 전달



박진영(오른쪽)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는 우리말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들이 모국어의 올바른 표현법과 전달력을 배우고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서 '단박에 통하는 전달력 수업' 100권을 고려인마을 내 고려인문화관(관장 김병학)에 전달했다. <박진영 대표 제공>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테마가행 길 스페셜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30 KBS 뉴스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태풍의 신부 스페셜	15 푸리가 식사교실 45 시간탐험대 다이너맨	30 고향이 보인다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 12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일당백집사(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성탄특집 SBS 스페셜 이상한 나라의 레베카(재)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영상앨범 산(재) 3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40 헬로키즈 과학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스포츠 스페셜 45 내 비밀친구 햄피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심 몽게공항 2(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00 브레드와 월크의 세계여행 15 좀비덤 3 30 반짝반짝 달님이 2 45 다이노 파워즈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재)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스페셜	00 알상달상 캐치! 티니핑 15 꼬마공룡 크앙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실화탐사대 스페셜	10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00 6시 내고향	0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05 7학년 주식회사(재)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풍의 신부	05 생방송 영곡복권 720+ 10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테크	20 7학년 주식회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30 내 눈에 콩깍지	30 세컨 하우스	30 2022 MBC 방송연예대상	30 KBC 8 뉴스	
00 KBS 뉴스9	50 연중 플러스		00 찐친 이상 출발, 딱 한 번 간단면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55 송년특선 앙코르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재)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0 KBS 뉴스라인				
10 역사저널 그날(재)	40 아이 러브 스포츠	3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나이트라인 30 상상!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시흥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하프와 친구들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8:00 생방송 워든지 해결단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EBS 교육진단	19:00 정글 플래너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3:00 글로벌 이빠 찾아 삼만리	19:30 한국의 둘레길
08:00 당동당 유치원	13:50 명의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20 미니특공대 바이레인저스	14:45 한국의 둘레길	20:40 세계테마기행 <로맨틱 홀리데이, 체코 -보헤미안 숲 랩소디>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겨울이어서 더 좋아라 4부 오징어가 돌아왔다!>
08:50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재)	15:35 푸리가 천사들	21:50 극한직업
09:05 고고다! 호기심딱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09:20 EBS 친구들 생생	16:15 페퍼 피그	
09:30 어떻게 만들까	16:25 한글용사 아이야(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6:40 당동당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9일(음 12월 7일 丙辰)

36년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48년생 한 번 실수한다면 오점으로 남으리라. 60년생 먼 곳으로부터 온 정보가 이익을 부르리라. 72년생 헛것 달려 보면 결과가 만족할 만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84년생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을 알라. 96년생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할 갈림길에서 있다. 행운의 숫자 : 46, 51

37년생 주변 사람의 괴로움을 보게 되리라. 49년생 다른 일과 겹치는 형상이다. 61년생 훌륭한 경험이 될 수도 있으나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라. 73년생 나서지 말고 잠자코 보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5년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계제이다. 97년생 용기보다는 지혜가 앞서야 할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05, 69

38년생 절실한 상황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다. 50년생 간절히 필요했던 이가 스스로 나타난다. 62년생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74년생 일관된 자세로 지속되어야만 효과가 있다. 86년생 원인 불명의 돌발적인 일이 터질 수도 있느니라. 98년생 진중할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5, 63

39년생 모든 것을 차치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만 할 국면이 이르렀다. 51년생 성패를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실행함이 더 낫다. 63년생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해둬야만 후사를 도모할 수 있다. 75년생 전체적인 국면의 구도에 맞추자. 87년생 장애물이 보이니 조심하라. 99년생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5, 73

40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행하는 것이 실속 있다. 52년생 현 상태에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64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76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88년생 단단해 보였던 것이 쉽게 파손될 수다. 00년생 슬관화되지 않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49, 62

41년생 활력소가 되어 주기에 충분한 일이 펼쳐질 것이다. 53년생 계획이 구체적이고 내용성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65년생 당해 문제의 여건이 충족되어 가는 국면이로다. 77년생 합리적이야만 설득력을 갖게 된다. 89년생 중차대한 일이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01년생 마음을 놓은 데서 실수가 비롯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9, 77

42년생 빈틈없는 계획 수립이 성공 여부의 관건이다. 54년생 원래부터 존재했던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66년생 주변에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곳이 보인다. 78년생 가벼운 정서가 현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자. 90년생 이면에서 작용하는 요인은 따로 있느니라. 02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9, 78

43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성사된다. 55년생 뜻밖의 만남이 있으나 짧은 인연일 뿐이다. 67년생 한 번 실수는 병가지사이다. 79년생 순서와 체계가 절실히 요청되는 과정상에 놓여 있다. 91년생 합목적적인 발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판시태라 할 수 있다. 03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옹이하다. 행운의 숫자 : 29, 85

44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56년생 실 개천에서만 노닐던 물고기가 큰물을 만났으니 즐거우리라. 68년생 일상에 벗어날 수 있는 과격이 어렵다. 80년생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상책이다. 92년생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머지않아 적용할 것이다. 04년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55

45년생 이동수나 매매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45년생 공전의 판국을 이끌 만한 찬스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다. 57년생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있으면 되느니라. 69년생 초기에는 열세하나 나중에 상황을 이룬다. 81년생 자신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93년생 기회를 주는 것도 랜장다. 행운의 숫자 : 32, 83

34년생 예의를 두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 뒤야 뒤탈이 없다. 46년생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58년생 단단히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70년생 여태까지 쌓아 온 바를 평가받게 되리라. 82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격량이 요청된다. 94년생 당연시해 왔던 점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41, 66

35년생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47년생 눈에 띄더라도 못 본체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 59년생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생산적이다. 71년생 활로가 트이는 기반이 조성되리라. 마지막을 주목하라. 83년생 상대를 파악하고 입한다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95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행운의 숫자 : 16, 67